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

1993. 1. 2

권제 21호

중국어문선교회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1993. 1. 2 통권 21호

목 차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 방지일 목사 2

특집

중국의 이단 / 4

이단사설 / 8

중국의 이단문제 비평분석 / 12

대륙 중생과 「생명회」의 관찰과 분석에 대하여 / 23

중국현지 통신 · 현지 성도의 증언 30

탐방

영등포 중화교회를 찾아서 32

인물 · 간증

기독교 신앙과 중국문화론 융화시킨 걸출한 학자 / 王治心 34

긴실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36

고난중에 함께하시는 주님 / 김요셉 39

「사랑의 집」에서 만난 예수님 사랑 40

선교보고

어둠속에 빛이 / 주성지 42

황금어장에서의 고군 분투 / 고대위 44

선교상식

중국의 민속풍물 / 촌락 사회의 개방성에 대하여 46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 예수님의 열두제자 49

중국선교 참고도서 50

중국여행 가이드 52

중국어로 찬양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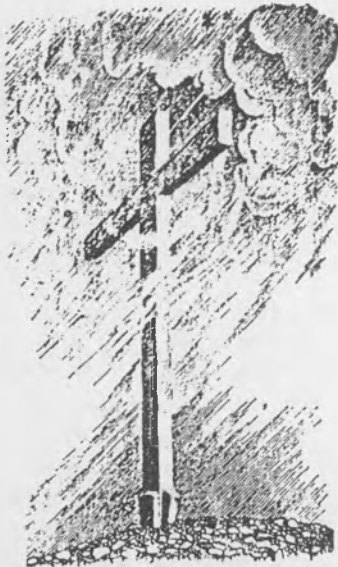
소식 · 기도

최근 중국동향 55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61

알림 62

편집후기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겨울이 막지나고 언 땅이
녹을 때 밭에 심은 보리는 밭로 잘 밟아
다져 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밭을
밟는 일입니다.

방지일 목사(중국어문선교회 고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여호수아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1972년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 요단강을 멀리서 보며 건너편 레바논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의 성경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만 같아서는 금방 요단을 건너 아무 제재없이 레바논 쪽으로 갈 수도 있으면만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영역 이상이었습니다. 남쪽의 네겝광야로 부터 북쪽의 레바

논 산악지대와 동서로 유프라테스와 지중해에 이르는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경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하신 경계를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한편 우리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나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나 돌짜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설명과 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꾼들에게 참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중국어로 찬양을!

从太阳出来之地
從太陽出來之地

詩篇 113:2, 2

Paul Deming



從太陽出來之地

直到日落



處的那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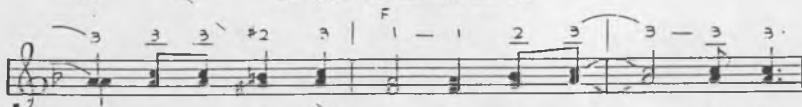
主的名

當讚美



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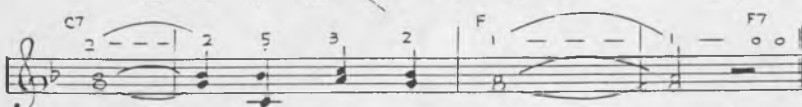
從太陽出來之地



直到日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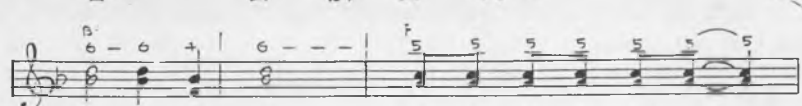
處的那邊

主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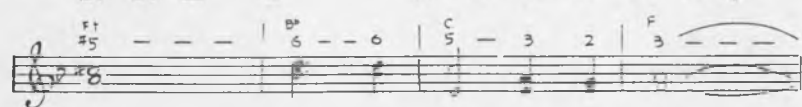
名

當讚美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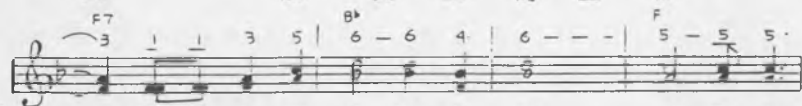
讚美主名

神的兒女要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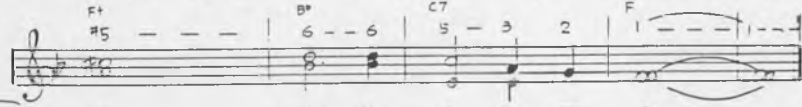
美

讚美主的聖名



讚美主聖名從今時

直到永



遠

讚美主的聖名

우리말가사: 해뜨는데부터- 해지는데까지- 주이름 찬양받으리×2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종들이 주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이름 찬양하리로다.

영등포중화교회를 찾아서



영등포 중화교회 유소총목사

“한국내의 중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교’라고 부르는 중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나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은 극히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던 차에 한중 수교와 이에 따른 선교적 차원에서의 화교교회가 차지하는 의의가 적지 않으리라는 기대로 영등포 중화교회를 찾았다.

영등포역에서 한 10분쯤 걸어 대로변 골목을 타고 약간 들어가다 보면 기계작업 상가에 인접한 작고 아담한 3층짜리 교회 건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유소총 목사가 담임하는 영등포중화교회의 보급자리이다. 유창한 한국말로 웅대하시느 유 목사에게서 잠시 한국인이란 착각을 받기도 했지만 5척 단신의 아담한 용모 속에서도 역시 중국인다운 중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영등포 중화교회를 포함한 화교교회의 역사와 현황을 유 목사에게 물었다.

현재 서울의 청동과 영등포 2곳을 비롯한 수원, 인천, 부산, 대구 등 모두 7곳에 교회가 있는데 1911년에 설립한 한성교회가 그 효시라고

한다. 주로 산둥 등지에서 건너오기 시작한 중국인 가운데 신자들이 서양선교사의 도움을 힘입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영등포 중화교회도 1958년 한국인 교회를 빌린다든지, 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61년 9월에 이르러 정식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한국내의 화교교인의 수는 3,4백 명 수준이고 영등포중화교회도 재적은 80명 정도나 출석 교인의 수는 3,4십 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토로.

그 중 절반이 순수 화교이고 나머지 25%가 한국인 중국선교 지망자이고 나머지 25%가 중국교포라고 밝혔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신앙양상의 차이점을 질문 받은 유 목사는 중국인의 민족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함으로 이에 답했다.

그 첫째가 중국인은 ‘지나친 현실주의자’여서 근면성실한 생활태도를 지나치게 숭상한 나머지 종교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도 영적 세계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점을 들어 전도의 어려움을 들었고, 두번째는 중국인들이 과거의 종교를 존

**현재는 전체화교의 숫자나
 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륙의 중국인과 화교의 결혼 등을 통한 한국내의
 유입이 증가하고, 따라서 교인 수도 늘어나라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었다.**

중하여 새로운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아주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즉 새로운 종교를 믿기 위해 옛 종교를 버리는 것을 더욱 좌악시하는, 기독교의 그것과는 엇갈린 죄관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기는 한국내의 화교들이 이민 등으로 점점 그 숫자가 감소해 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유목사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유 목사의 설명인즉 현재는 전체화교의 숫자나 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륙의 중국인과 화교의 결혼 등을 통한 한국내의 유입이 증가하고 따라서 교인의 수도 늘어나라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자연히 중국선교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올해의 영등포중화교회의 목표가 중국선교라고 말씀하는 유 목사는 그 자신이 한국분들로부터 “당신은 어째서 중국인인데도 한국인보다도 중국선교에 관심이 없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 했다. 그는 “물론 중국인으로서 그렇게 해야겠고 또 중국선교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에 가서 뭘 한다고 하는 중국선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그 이유로는 현재의 중국체제가 외부인들이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의 변화가 없는 한 가서 전도한대도 유익이 있기 보다는 종교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던 점을 들었다.

우리가 중국선교여행을 다녀온 어느 분의 체험을 들어 논평을 요구하자 중국에 갔다온 100이면 100이 다 다른 말을 한다. 즉 그것은 각자의 체험일 뿐이지 중국전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무작정 사명으로 전도하러 간다는 특공대식 단기적 선교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언했다. 이는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수명이 길지 못하며 중국정부의 누가 보더라도正道와 大道를 걸어야지 관방인사를 통한 묵인하의 전도와 같은 비공식적 선교행태는 선교전략이 될 수 없으며 되서도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가 행하는 선교를 다

음과 같은 말로 평가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중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와 교육시켜 현지선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에도 큰 기대를 건다면 실망할 것이다. 지금 그런 방법들이 중국당국에 포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인이라도 전도증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행하는 어떠한 선교방법에도 100% 박수를 쳐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것이 중국선교의 가장 좋은 길이 되겠느냐 질문에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의 대답은 소극적이 아니냐는 반응도 받고 있다면서 2가지를 그 처방으로 내놓았다.

먼저 케케묵은 방식이랄지 모르나 중국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기도회를 가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삼자교회와의 바른 협력으로 정식선교의 길을 트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라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이제 삼자교회를 휘방하면서 전도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까지 3자교회를 비판하던 모 인사도 침묵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중국의 3자교회와 자주 종교적 국제회의 등으로 왕래하면서 우리 선교사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주도록 체계적 변화를 시도할 때다. 이것이야말로 한중수교가 우리에게 부여한 좋은 기회인 것이다. 다른 서구 열강이 삼자교회의 성립에 직접요인이 되었던 데 비해 한국은 이제 다른 서구교회가 성사시키지 못한 일을 이를 호조조건이 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분명 새로운 혁신적 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느껴진 것은 웬 일일까?

이것이 만리장성의 중국식 선교전략이어서였을까? 아마도 이날 산동어는 성조가 없고 발음의 장단의 차이로 구별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유 목사로부터 처음 알게 된 중문학도의 당혹감과도 같은 맥락이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장장 3시간에 걸친 탐방을 매듭지었다.

기독교신앙과 중국국문문화론

융화시킨 걸출한 학자

王治心



王治心은 민국 20년대부터 기독교 저술분야에서 활약한 작가이자 학자다.

그의 평생 동안의 저작은 풍부하며, 내용방면에 있어서는 중국고전에 대한 연구나 기독교의 교리를 선전하는 저술이건간에 내용이 충실하고 문장이 아름답고 음률이 뛰어나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록 구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상과 종교신앙을 받아들인 유학자였다. 만년에는 해외로 도피하지 않고 공산치하에 남아 金陵신학원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가 분명하지 않아 알 길이 없다.

그의 일생 동안의 사적은 쉽게 논할 일이 못된다. 다만 그의 초기 문서사역 방면에 있어서 중국교회사의 행운이었으며 지워지지 않을 공헌을 했다.

王治心은 淸 광서 7년(1881)에 태어났으며 본적은 浙江省 吳興이다. 吳興은 湖州라고도 일컫는 곳으로 절강성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東若溪와 西若溪가 이곳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흘러 다시 大潮로 들어가는 곳이다.

吳興은 역삼각형의 杭嘉胡平原의 아랫부분이자 호수와 산새가 뛰어난 곳으로 시인묵객이 모여들던 곳이기도 하였다. 王은 어려서 엄격한 유

가교육을 받아 전통교육을 수학한 학자로 만청정부의 과거제도에서 합격한 舉人이었다.

거인으로 뽐히고 난 뒤 王은 중학의 국학교사로 임명되어 십여 년을 근무했다. 청조가 멸망하고 민국정부가 수립되자(1911) 왕은 감리교 潘愼文(A. P. Parker) 목사의 초빙으로 興華報의 편집을 맡았다.

홍화보는 웨슬레교를 필두로 미국 메도디스트교와 감리교가 합자하여 내던 기관지로 宣統 2년(1910)부터 홍화보라 개칭하여 매주 1冊을 출판하였다.

왕치심이 출판편집을 맡은 후 내용은 충실해져 판로가 확대되었다. 왕의 자술에 따르면 판매수량은 장로회가 南京에서 출판하고 있던 기관지 通問報의 부수에 뒤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기독교신앙은 웨슬레선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국 10년(1921) 그는 홍화보의 편집일을 사임하고 남경으로 가서 金陵신학교의 중국철학과정 교수를 맡게 된다. 5년 후 기독교문사에서 蘇州 東吳大學을 설립하였는데 (1926), 文社의 설립주지는 중국 토착 기독교의 중국어문 저작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문사월간”을 간행하였고 왕은 편집을 맡았다. “文社月刊”을 간행함에 있어 일반독자에게 가차없

는 비평을 가하는 등 그의 언론은 격렬하였다. 때문에 모함을 당해 민국 17년(1928) 정간된다. “문사월간”은 단지 삼년 남짓 존속되었지만 그것이 끼친 영향력은 컸다.

왕치심 자신이 원고에 엄격했을 뿐 아니라 교계내의 뛰어난 인사들이 기고인으로 망라되었으니, 劉廷芳, 吳雷川, 趙紫宸, 余日章, 誠靜怡 등이 활약했다.

“문사월간”은 충격적인 내용이나 아름다운 문장도 실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 관계의 수종의 단행본도 출판하였다. 趙紫宸의 《基督敎哲學》, 《耶穌的人生哲學》 間又文的 《革命的基督敎》, 謝頌羔와 米星공역의 《近代科學的宗教觀》 등은 독자들의 흥미를 많이 끌었던 저작 등이다.

王治心이 저술한 《中國歷史的上帝觀》도 文社출판사에서 간행되었는데 판매실적이 양호하였다. 文社가 교회에 공헌한 것이 있다 할진대 王治心の 공로 또한 사라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다.

王治心은 文社에서의 사역 이후 福建省 福州市의 協和文理學院에서 교수직을 맡아 중국문화 방면의 강의를 했다. 福州의 協和文理學院은 민국 5년(1916) 미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 미국 기독교 협회와 미국 메도디스트교 등 4개교파가 합자 출자해 세운 최고문리학부였다. 王은 원장직을 6년 간 맡은 뒤 민국 23년(1934) 上海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는데 그 후의 사적은 잘 밝혀지지 않아 알기가 어렵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王이 南京의 金陵神학의 주필을 맡아 간행물의 편목과 내용에 충실을 기했고 이 책이 널리 읽혀졌다는 점이다. 민국 39년(1950) 金陵神학교 개교 40년 경축에 이 학교의 40주년 기념 특간을 내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계의 저명한 지도자 등의 학술논문이 실려 있었다.

이 특별 간행물의 출판에도 70고

령의 王治心은 여전히 主編人으로 활약하고 있었고 해외로 도피하지 않았다.

王治心の 일생 동안의 저작은 매우 풍부한데 아래와 같다.

《中國學術源流》, 《孔子哲學》, 《墨子哲學》, 《道家哲學》, 《基督徒의佛學研究》, 《古文今譯中國古事》, 《中國古代的上帝觀》, 《中國宗教思想史大綱》과 《中國基督敎史綱》 등이 있으며 단편의 작품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니, 그와 함께 문사 사역 방면에 종사하였던 應元道가 그를 일컬어 “우리 기독교 저술계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라고 한 것도 당연하다.

王의 저작 가운데 《中國宗教思想史大綱》과 《中國基督敎史綱》은 가장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고 해외에까지 소개되었던 책으로 지금까지도 출전되고 있다. 특히 후자는 중국 기독교역사에 있어 최초의 완전한 저작이며 여기에서 王은 깊은 역사 이해와 정확한 문장으로 중국에서 천여 년에 걸친 기독교를 핵심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가 중국문화상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가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과 중국의 과학사상 및 민주사조에 미친 효과 등을 언급하면서 신중국의 건설에 막대한 공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서적이 출판된 지 이미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중국 기독교사 방면에 이 책을 뛰어넘는 저작은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니 《中國基督敎史綱》은 실로 전범적인 책이라 할 수 있다.

王治心은 기독교의 토착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으로, 여러 편의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토론을 거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실로 일생 동안 기독 신앙과 중국문화의 융합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 사람이며 그 공로는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진실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짐이 무거운 사람

1983년 나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이 해에 나는 주 예수를 믿고 생명적 변화를 갖게 되었다. 우리 집은 네 명의 아이를 포함한 여섯 식구가 내몽고의 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생활은 된다. 믿기 전 나는 자주 아팠으며 7~8종의 병을 갖고 있었다. 병원이 집이나 마찬가지고 약복용이 습관화되어 있었으며 매일 병과 싸우는 고통스런 생활이었다. 당시 몹시 말라서 숨을 안팎으로 두껍게 입고 거기다 숨신발을 신고서도 체중이 겨우 60kg이었다. 병 때문에 성격은 더욱 거칠어져 제멋대로 굴었으며, 집안의 대소사 결정에 내 결정이 옳든 그르든 관철시키고야 말았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몹시 불쾌해 했다. 병으로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사사건건 시비가 있었다.

1983년에 한 형제가 주님을 소개한 뒤부터 상황은 변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태복

음 11:28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나는 큰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그를 영접했다. 주는 참으로 자비롭다. 그는 내 영혼을 구했을 뿐 아니라 질병도 모두 고쳐주셨다. 지금 내 체중은 숨을 벗고도 75kg이나 나간다. 나는 내 몸을 통해 그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했고 이후 죽기까지 믿음이 변치 않으리라 결심했다. 지금의 나는 건강도 좋아졌고 성품도 좋아져서 가족들이 몹시 기뻐한다. 큰 딸과 아내는 나의 변화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제 가정은 화목하여 모든 일을 의논한다. 작은 딸의 일에도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을 받아 모두 평안을 마음에 느끼고 있으며 이야말로 전에 없었던 축복이다.

나는 믿은 지 2년 뒤에 세례를 받았다. 세례 전에 마음 속에 한 가지 큰 갈등이 있었다.

나는 형과 어떤 일 때문에 왕래가 없이 원수처럼 지냈다. 인간적 관점에서 나는 형에게 할 도리를 다 했기에 내가 먼저 그와 화해하고 싶지 않았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전에 형을 용서하고 자발적으로 형과 화해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 무척 기뻐다. 세례 때 뜨거운 기운을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느끼고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다. 동시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왔다. 주님은 용서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

두 차례의 귀신 쫓은 경험

믿은 지 2년째에 외조카딸이 갑작스레 정신병에 걸렸다. 외조카딸을 우리 집으로 오게 하여 기도를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에게는 집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온 가족과 합심기도를

했다. “저에게 능력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후 그녀를 집에 들어오게 하여 기도했다.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달라는 기도였다. 갑자기 그녀가 진정되고 병이 나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데리고 간 뒤 그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마귀가 그녀를 공격했으나 감사하게도 그 부모 형제의 끊임없는 기도로 12일 뒤 병이 완전히 나았다. 병이 나은 뒤 그 아버지는 다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같은 일이 다른 자매에게 일어났다. 이 소녀는 15세로 미친 지 40여 일 되었고 매일 30알의 수면제로도 잠들지 못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아직 믿지 않던 사람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일이어난 것이었다. 그는 딸의 병을 통해 예수께 돌아왔다. 딸이 40일이 넘게 조금도 차도가 없자 딸을 정신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병원비는 500원에 달했고 그에겐 200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게 돈을 빌리러 오게 되었다. 나는 이 일을 알고 다음날 그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10시쯤 나는 두 명의 형제를 집으로 오게 하여 이 소녀를 위해 기도했고 다음날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이튿날 우리는 그녀를 찾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소녀가 발병 후 한숨도 자지 않았으나 바로 어젯밤 10시 우리들이 기도했던 때 그녀가 잠들었다고 알려주었다. 나중에 우리는 그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몇 명의 형제와 더불어 안수 기도했으며 그녀는 곧 기뻐하며 얼굴색이 좋아졌다. 그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즉시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구박하고 때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왜 그가 주님을 때렸다고 말했을까? 원래 그는 불신자로 신자인 아내와 딸을 때리곤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 후 나는 그 소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낮에는 형제 자매들에게 돌보게 했고 저녁에는 우리 가족이 그녀를 돌보았다. 믿음으로 기도한 지 7일이 지나자 병이 완전히 나아 그녀는 2일 동안 줄곧 잠을 잤고 우리 집에 머문 지 9일 뒤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간증을 했으며 40일 간 매일 30알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그녀의 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음을 입증했다. 하나님 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고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깨어서 주를 위해 일하자

이 두 가지 사건에 동참했기에 더욱 나 자신의 믿음을 깊이 생각하게 했다. 두 소녀는 매우 건강하고 평안했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아 평안은 사라지고 절제를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영혼을 찾아다님을 유의해야겠다. 줄지 말고 더욱 깨어 있어야겠다. 어느때이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깨어서 주를 섬겨야

했다. 다음의 찬송가 가사는 나를 격려하고 기쁘게 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영접합시다. 낮에는 일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영광을 기다리자”

매우 즐거운 가사로서 주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낮에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할 것을 일깨운다 우리는 장차 영광 중에 주님과 만나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다.

죽음에서 부활한 기적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자매는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하였다. 이 일로 나는 많은 격려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생명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해에 그녀는 25세의 젊은 나이였는데 병의 고통이 극심했다. 그러나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자매는 주님을 믿고 나서 쉬지 않고 병을 위해 기도했으나 진전이 없어 보였다 내똥고 의원에서는 이미 방법이 없다는 진단이 났으므로 북경종류원으로 갔다. 종류의원의 한 교수가 그녀의 병력진단서를 보더니 접수시키려 하지 않아 북경정형과학연구원으로 갔다. 만약 그곳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집으로 가자고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뇌종양인데 정형과학원으로 가게 된 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는 적절하였다.

정형과학원의 한 교수는 온 가족이 신자였지만 그 혼자만 믿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자매를 통해 자신을 알게 하셨다.

그 자매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처음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 서였지만 믿은 뒤에는 주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수술 전 교수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분의 일의 희망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입니다." 교수는 몹시 감동했고 그녀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신기해했다. 이 수술은 대 수술이라 출혈이 많았고 혈액형이 AB형이라 약과 주사에 과민반응이 일어났으므로 교수는 이 수술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자매의 박동은 정지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단정했다. 그들은 장례를 준비했다. 과학원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에게 3일내에 오도록 통지했다. 그녀의 한 언니는 인민대회대표로서 북경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동생의 심장이 멈춘 3일 간 몹시 불안하고 동생이 생각나서 병원으로 왔다. 다른 몇 명의 대표도 그녀의 사정을 알고 과학원으로 함께 왔다. 의원측은 처음에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으나 인민대표라는 권위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

수술실 앞에서 언니는 동생이 부탁한 말이 생각났다. "언니 어느때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일동은 그녀의 동생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가 끝난 뒤 간호원이 병자의 침대를 밀고 나왔다. 친지

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어떤 사람은 그녀의 얼굴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그녀의 손을 만졌는데 놀랍게도 맥박이 느껴졌다. 그들은 고향을 질러 의사들을 불렀다. 의사들은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응급조치를 하고 6시간의 수술을 했다. 그녀는 살아났으나 몹시 쇠약했고 목소리는 극히 미약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죽은 지 3일 만의 부활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믿지 못했고 병자에게 "당신이 수술대에서 바로 일어난다면 당신이 믿는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텐데..." 라고 말했다. 수술 뒤라 몹시 쇠약했음에도 그녀는 이 도전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

주의 전능하심을 보이심

그녀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수술대 위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진짜 하나님이구나!"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고 불신하던 교수도 엎드려 주예수를 영접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 일은 전과학원을 뒤흔들어 놓아 수술 받으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다. 그 자매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반 년간 그곳에 머물렀는데 수술 때마다 불려가서 기도를 해주었다. 그녀가 퇴원할 때 의사, 간호원, 여러 임직원들이 역까지 환송나왔다. 그녀가 돌아온

뒤에도 수술을 맡았던 교수는 매달 편지를 보내온다. 그녀의 건강을 묻고 아울러 그가 읽은 성경의 진리라든가, 생활 속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참되었고 살아계신 분인 것을 증거해주었고 믿는 사람마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음을 말해 주었다.

나는 믿은 이후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을 경험했다. 슬한 간증은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알게 된 것이거나간에 그 자매의 부활의 간증처럼 큰 격려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해 주었다. 나는 원래 세상을 좋아하고 명리를 좇던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진 뒤 세상의 명리나 지위는 헛되고 오직 주 예수 안에 나의 참행복이 있음을 보았다. 바라기는 1-2년 뒤 퇴직한 후 전시간을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다시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진실되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中國與教會 92期 중에서)



고난중에 함께하시는 주님

김요셉(처소교회 지도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102:2)

내가 한국으로 성경공부 하러 온 지도 어느덧 4개월이 되어 부득불 귀국의 길에 올랐다. 1991년 9월 13일, 3시 40분, 서울발 홍콩행 스위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에 처음 오른 나였건만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현시대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는 이곳을 떠나 복음의 황무지로 불리우는 본국에 돌아가서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비행기가 우르릉거리면서 뜨기 시작하자 여객들은 비행기가 뜬다고 내가 잘 알아 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떠들어댔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다 귀찮았다. 눈을 내리감고 앞으로 되어질 문제, 전도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였다. 두 눈에서는 끈 풀어진 구슬마냥 눈물이 굴러나와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비행기가 만메타 상공에 이르렀다고 방송원아가씨가 방송하는 것이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니 불안과 괴로움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신심이 생기었다. 기도를 마친 나는 옆에 난 유리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느덧 구름바다 위에서 비행하고 있었다. 뭇게뭇게 피어오르는 구름들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면서 창문유리에 사진기를 대고 살짝살짝 뭇게뭇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찍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사진 현상사에 가서 여정에서 찍은 사진을 현상하였는데 내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만이 현상 되지 않았다. 나는 필름을 살펴보지도 않고 농 속에 넣었던 것이다.

귀국 후 개척교회를 세우느라 여러 가지 힘든 시험들을 당하게 되었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연이어 닥쳐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하여 때론 “주님께서 지금 내가 자살하여도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나는 지금 곧 죽겠습니다.”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응답은 없고 오히려 시험은 더욱 큰 시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치었다. 나는 연 며칠 시험을 이겨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침식마저 다 잃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밀고나가야 하는가? 하는 판갈이 싸움이 치열했다. 하루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니 어쩐지 귀국 여정에서 찍은 사진필름이 보고 싶었다.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등불을 켜고 마치도 도둑같이 농



을 살며시 열고 귀국여정에서 찍은 사진 필름을 꺼내들고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였다. 매편에서의 즐겁던 그날, 서울의 이모저모, 고공 1만2천 미터 높이에서 찍은 구름 때. 나는 저으기 놀랐다. 뭇게뭇게 피어오르는 구름 때에 마치도 인면 같은 모양이 명확히 나타나져 있었다. 전등불에 비추어 찬찬히 들여다보니 서울에 있을 때 본 예수님 수난상과 같았다. 나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현상부에 가서 현상해 보니 과연 수난당하고 있는 주님의 얼굴과 같았다. 몇 번이고 죽으려고 시도하던 그 마음이, 주님은 누구 위해 죄 없이 수난을 당했는가?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주님께서 당한 수난과 비기면...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스스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주님, 나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가 생기었다.

나는 개척교회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시험이 몰려 올 때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우러러보면서 나 때문에 수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다.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험은 하나하나 물러가게 되었고 예배드릴 만한 처소마저 없어 주일날이면 여기저기 하던 개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60명이 되는 교회를 마련해 주시었다. 비록 셋방살이지만 깨끗하고 반듯하여 영하 3.4십도 되는 겨울날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나 때문에 수난당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새해는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이곳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바이다. 할렐루야!

1992년 성탄절
김요셉 전도사로부터



‘사랑의 집’에서 만난 예수님 사랑

사랑하는 형제자매분들과 우리를 만나게 하고 교제로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할 말은 간증이라 할 수 없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일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5살, 닭띠고 생일은 69년 11월 15일입니다. 저는 중국교포이고 ○○○성 ○○시에 삽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학습을 잘했습니다. 한 반에 52,3명되는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치면 4,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과 6개과목 지력경쟁에서 3등을 했습니다(전시적으로). 그러던 언젠가 저의 다리가 너무 아파 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내가 휴양 1년을 하고 학교에 가서 다시 학습하려 하니 흥미가 없고 복습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신세타령만하면서 술만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거짓말도 하고 나쁜 아이들과 뒤흔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훔치고, 싸우고, 욕하고, 기차 위에서 도적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을 나가면 며칠 동안 혹은 1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저는 모르고, 술만 마시면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누구도 안 믿고 작은 삼촌이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요일 저녁 삼촌과 함께 집과 가까운 개

인 집에서 하는 처소교회에 갔습니다. 내가 처소교회에 들어서니 ○○ 집사라는 분이 제게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 하니 기뻐서 신도 벗겨 주고 자부동도 가져다 주고 올라가라구... 참 내가 이렇게 클 때까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 보았어요. 그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 ○○ 집사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 나오지는 못하고 어디서 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내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고 꼬박 기쁜 일만 생겼습니다. 또 예배드릴 시간이 가까워 오면 가고 싶었습니다. 매주 일마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얼마 후 부모님이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력저력 지내다가 한 달만에 한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바로 92년 부활절날에 어머니가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리하여 저는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활절 저녁 나는 술을 많이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국에 간 후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두 주일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한 친구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놀지만 교회생각이 나서 나쁜 일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요. 그리고 주일과

수요일이 되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세번째 주일날 저녁 되는 날 발길이 저도 모르게 그 첩소교회로 달게 되었습니다. 교회까지 가서 집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되는 날 저는 가고파 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여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눈물로써 부모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일이 지나니 한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는 병도 낫고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자주 다녔습니다. 두 달이 지난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한국땅에 온 후 일자리를 찾았는데 광고집에서 내온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 달 일하고는 일이 없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역에서 아침에 김밥 한 개,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 김밥 한 개 먹으면서 꼬박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았지만 못 찾고 실망했습니다. 10월 25일 저녁 제가 여인숙에서 주머니의 모든 돈을 꺼내놓고 보니 2,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동안 편안하다 보니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돈도 없고 하니 성경학습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이튿날 10월 26일 제가 또 서울역에 나가 오전 10시까지 찾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에 싸여 서울역 한 구석에 가방을 놓고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앉아 있는냐고요 저는 사실 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말을 다 듣고 그분은 성경학습을 받게 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먹고 잘자리도 없는데 대답해 놓고 일자리를 찾는 후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이를 만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내일 일하러 나간다면 오늘 저녁에 배가 갑자기 아프고 숨쉬기가 바빴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두 구절이 있는데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

11:28, 수 1:9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 전도사님께서 내가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과 늑막염이었습니다. 나는 병의 진단을 받은 후 몸이 탁 풀렸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돈 일 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의사님께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과 목사님 성도들이 나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병이 꼭 고쳐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열심히 눈물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주일 후 '사랑의 집'에 전화가 왔는데 한 장로님이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 전도사와 ○○○ 누나의 부축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집'을 위해 봉사하는 ○○○ 전도사님과 ○○○ 전도사님, ○○○ 전도사, ○○○ 누나의 따뜻한 보살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같이하셨기에 한 달 만에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사랑의 집'에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깨우쳤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과 이렇게 좋은 기독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높이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에게 이 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의 집'에 온 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돈 일 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갈 차비를 나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 채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중국에 돌아간 후에도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축복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중국교포 ○○○형제>

어둠속에 빛이

주성지(중국어문선교회 협력선교사)



학교 운동회날이었다. 커다란 붉은 꽃을 머리에 달고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 선봉대들이 우렁차게 소년선봉대가를 불렀다.

“우리는 공산주의 계승자 선배들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으며 조국과 인민 자랑하자 붉은 넥타이가슴에 날린다. 곤란과 원수 두렵잖다 학습하며 투쟁한다. 승리 향해 용감히 전진, 승리 향해 용감히 전진, 우리는 공산주의 계승자”

한복을 입고 응원하는 선생님. 한복치마를 걷어올려 허리춤에 꽃고 달리는 선생님 선수, 쓰레기가 질펀히 깔린 응원석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는 내 손. 급기야 급해서 달려간 화장실에서 아뽀싸! 이것이 학교 화장실이라니 정신이 퍼뜩들었다. 떠날 때 벼들이 하신 말씀, “선생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 뒤로 날아간다”라는...

밤에는 교사 위로연회가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앞에 놓고 “부어라 마셔라 나라를 위하여”라는 흥겨운 노래에 맞춘 건배, 언제나 가득채워 주는 술잔,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를 목청껏 뽑는 젊은 선생님들. 다같이 춤추는 시간에는 먼저 모택동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다음 우리 가락에 맞춰 춤을 추었다. ○○가 말했다. 마음껏 먹고도 버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나라, 적게 일하고 조선폰끼리 만나면 언제나 즐겁게 춤추며 놀 수 있으니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줄 알았는데 2~3년 사이 개방이 되고 보니 낙후된 나라에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안하고 먹고 노는 모습을 외국인한테 보이니 부끄럽다고 했다.

○○는 30년 이상 오직 당을 위해 충성한, 말 그대로 열렬한 당원이다.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를 열렬하고 공산주의 승리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혁명에 온 심혈을 바쳐오다가 2년 전 잠깐 서울 방문을 계기로 절대적이던 공산주의 신봉에 금이 갔다. 그러나 사회적인 직위 때문에 한 마디 정치 비판도 못하고 만나면 언제나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모든 직장인은 일주일에 3~4시간씩 정치학습을 하고 인민은 누구나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는 이런 정치학습을 시키는 분이다. 이분의 학교와 가정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 당원으로는 금기사항인 미신활동 즉 점을 치고 비방책을 몰래 몇 번 했지만 우환을 막을 수 없었다. 공산당이 막을 수 없고 당보다 위에 있는 어떤 세력이 존재함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반대하던 기독교

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다. 마침 읽고 있던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라'를 빌려주었는데 ○○ 부부가 하나님 방법의 사회주의를 알게 되고 현중국의 정치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든 모순덩어리의 사회주의로 이해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산주의만이 인민을 참으로 해방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쉽게 그리고 깊이 이해했다.

공산당원이 종교를 가지면 당직과 직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가정의 결단을 재촉하는 작은 일이 생겼다. 아들이 급성결핵성낙염으로 치료중인데 차도가 없어 매일 울면서 병원으로 밥을 싸서 날랐다. ○○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가정도 나라도 잘 살 수 없고 하나님은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중국의 정치적 죄악인 유물론을 가르쳤지만 그 점에는 언제나 의심을 가졌던 것 등으로 고귀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당원의 자녀는 마땅히 나라에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일년 생활비가 넘는 몇천 원의 치료비를 개인 부담케 하고 아들의 직장을 해고해 버렸다. 공산당이 당원을 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당을 섬기겠느냐고, 지금까지는 모르고 당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죽도록 믿고 싶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울면서 물었다. 기도를 하고 싶는데, 기도는 앉아서 하는지 서서 하는지 불을 켜야 하는지 꺼야 하는지도 물었다.

그날 밤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했다. 병원에 있는 아들을 속히 완쾌시켜 주시라고 조목조목 기도를 올리고 왔다. 나흘 후 ○○가 찾아왔다. 아들의 열이 내렸고 남아 있던 65CC의 물이 35CC로 저절로 줄었으며 갑자기 회복속도가 빨라졌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효험이 있는데 다시 미신을 믿으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다고 했다. 당원으로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나와야 하는데 약 3년만 몰래 믿을 수 없냐고 했다.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내에 이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당원도 믿을 자유가 올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고, 드러내지 말고 믿으면서 중국공산당을 대신한 회개기도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늘 드리라고 했다. 그 이후 이들은 스스로 성경을 학습하며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부부간에 전화라도 상의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첫 유치원 수업시간이었다. 약 30명의 꼬마들이 차렷 자세로 앉아 있고 뒤에는 교장 선생님과 학생 수만큼의 교사들이 남조선선생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 "너하고 나는 친구되어서 사이 좋게 지내자" "아빠 손가락이 일을 한다" 등 노래와 울동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와 거리감을 없앴고 서툰 조선말로 아빠 엄마 흉내를 내려는 천연스러움의 뒤에 앉은 선생님들의 긴장을 풀었고 같이 노래를 따라하는 여유도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 혁명식 용어들은 교사들의 사고조차 굳게 매어놓아 유치원 수업시간조차 '예쁘게 하자' '침 잘한다' 등의 말을 한 번도 못해 보았다고 한다. 가장 흐뭇한 것은 어린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딱딱하고 긴장된 수업시간에 마음놓고 웃지 못하고 입을 가리고 킁킁거리는 웃음, 노래를 부르다 흥에 겨워 전부 일어서서 노래와 울동하는 것을 어른 선생들은 보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의 존엄성, 인간성의 해방, 어른과 어린이를 옹아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밧줄, 그들은 이제야 의식하고 있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들은 모른다. 단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겨우 의식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아닌가! 단지 사회주의 체제 때문만이 아니다. 요즘 채택한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는 12억의 인구에게 유일한 우상인 돈을 섬기게 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양심도 법률도 상관없이 착복하고 입만 다물면 되는 것 같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교해야할지 기도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좁은 땅에서 오래 살아온 탓인지 한국선교사들이 중국에 오면 서로 싸운다고 한다. 내 교회와 내 선교회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란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중국현실을 언제쯤 이해하게 될지 모르겠다. 선교를 위한 간접투자에 좀 넉넉할 수는 없을까? 헌신된 선교사, 기도가 있는 헌금, 끊임없는 후원기도가 있는 선교활동이라면 하는 일이 비록 비천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은 심어지고 자라서 열매 맺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받은 축복들을 중국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황금어장에서의 고군분투

고대위 (중국어문선교회 협력선교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10:12~15)

작년 봄 ○○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약 5개월 만에 걸친 사역을 끝내고 잠시 귀국하게 되었다. 그간에 함께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사역에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내가 ○○로 파송을 받아가게 된 동기는 이렇다. 원래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터에 ○○의 현지교회의 남선교회를 통해 선교를 제의받게 되었다. 교회이름으로 초빙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중국선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기도회를 갖던 몇몇 집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일하는 수천의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안타깝이 여겨, 수소문 끝에 나에게 회사직원의 신분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나는 마침 막 결혼하여 신혼의 몸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혼잣목으로 ○○에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1차 답사여행을 거친 후에 가게 된 ○○는 7~8천의 우리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필리핀 일본 등지의 기업이 진출하여 한창 건설 사업이 진행중인 그런 곳이었다. 우리 나라의 거제도만한 크기에 무더운 기후를 지닌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천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수시로 몰려들고 있는 땅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는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서인지 이들에 대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 싶었다.

처음 이곳에 당도한 후 한두 달은 그저 뜨거운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시장터에 서서 중국인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접근하여 말 붙이고 전도하는 노방전도를 시도했으나 이 방법이 비효과적임을 깨닫고 접촉 수는 적더라도 내실있게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일대일로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버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자가용 출입을 해야 하는 현지 사정상, 그들을 찾아 다니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더구나 오전에는 회사근무하고 낮에는 전도를 위해 교재를 준비하고, 퇴근 후 숙소로 돌아오는 그들을 찾아 짧은 시간 전도의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신 주말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선 그들을 자주 접촉하고 사귀면서 그들의 어려움도 듣고 도울 수 있는 문제도 찾으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힘썼다. 이런 후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따로 양육시키는 방법으로 사역을 행했다. 5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는 그곳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

첫째는 앞서 얘기 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앞서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그들의 단조로운 생활 속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선교보다는 게임, 율동, 비디오시청 등 간접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대화의 폭도 넓혀 그들 문화나 시와 같은 문학작품을 간단히 암송할 수 있을 정도면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셋째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층 보다는 젊은층이 훨씬 개방적이고 관심이 많다. 이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전도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는 그들과 자주 접촉하고 충분한 정이 오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자주 접한 만큼 복음 전하기가 수월하다.

다섯째는 선교사, 목사의 신분보다는 그들과 같은 근로자의 입장과 신분에 서는 것이 대화와 접근에 훨씬 용이하다. 아무래도 같은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마음 편한 것이 정한 이치라 수 있다.

여섯째는 이런 평신도 직업선교를 위해서는 직장의 특별한 배려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선교를 위한 충분한 시간의 배려를 받는다는 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다.

한편으론 우리와 다른 사회체제 속에 살다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때 여러 가지 장벽도 느끼게 되었다.

그 첫째가 무신론의 세계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먼저 부딪히는 것이 유신론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 차분히 그들의 무신론을 깨뜨려 줄 유신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둘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한참 잘 진행됐다 싶으면 어느새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무척 당황하게 된다.

셋째가 간체자 교재의 부족이었다. 대륙에는 모두 간체자를 쓰는 반면 대만 쪽에서 나온 전도지나 책자는 정자체가 대부분이어서 일일이 간체로 바꾸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넷째가 그곳의 중국인의 체류기간은 짧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성장시켜 들여보내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고 대개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듣고 가는 수준이다. 이런 단기체류에 따른 선교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국선교를 원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준비할 사항을 말씀드림으로 끝맺을까 한다. 제일 먼저 철저한 언어 준비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각 지방 말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익힌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느낀 것은,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간체자를 철저히 익히라는 것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륙의 중국인들이 정자체로 쓰면 해독하지 못한다.

셋째로 단계별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재의 준비가 있어야 하며 현지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는 기타 등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선교에 유용할 것이다.

다섯째는 중국에 관해 가능한 한 알기를 힘쓰기를 권한다. 문학, 정치, 음식, 풍속 등등 이것이 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있는 무기이다.

촌락사회의 개방성에 대하여

번역 김성곤(중국어문선교회 번역위원)

華北 지방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인 촌락은 모두 산, 강 혹은 기타 큰 자연적인 지형지물 혹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매우 높은 토담 등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얼핏 보면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고립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가옥들은 토담 내에 모여 있고, 농경지는 모두 토담 밖에 있어 토담 안에서 경작하는 전지까지는 일정한 거리로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촌락은 고립적이며 유동성이 결여된 폐쇄적인 사회로 오인되기가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華北의 촌락은 비록 어떤 방면에서는 비록 고립성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이러한 촌락들은 또한 거리가 대단히 떨어져 있는 지역과도 각종 지적인 교류를 갖고 있다. 교류를 돕는 매개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약장수에 대해 관찰해보기로 하자.

山西省 臨汾 부근의 劉村에는 매년 여러 차례 河南 洛陽으로부터 약장수가 온다. 이 사람들은 약을 팔 뿐만 아니라, 간단한 치료도 겸하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들을 '南蠻子'라고 부른다.

삼국지에 나오는 關公의 출생지인 解州에는 광대한 關帝廟가 있어서 매년 4월이면 廟會를 거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고 약재의 교역이 매우 흥왕하게 된다. 이 4월 廟會에 맞추어 河南, 河北, 陝西, 四川 각지로부터 약장수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약재를 서로 교환한다. 후에 이들은 교환한 약재들을 가지고 각 지역의 촌락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된다. 이 외에도 虞鄉 북방의 南梯村에는 매년 3월에 역시 약장수들이 河南으로부터 모여드는데, 이들은 병

치료까지 겸한다. 또 黃河 부근의 蒲州에도 약장수들이 河南 禹州로부터 오곤 하는데, 이들 역시 '南蠻子'라고 칭해진다.

五台山 기슭에는 매년 약장수들이 4,5월 사이에 모이는데, 4인 일조가 되어 이곳에 와서는 2개월 정도 머문다. 이들은 모두 河南, 湖南, 廣西에서 온 이들로서 침을 놓고 땀을 뜨기도 하고, 또 관상을 보기도 한다. 代縣에서도 이 약장수들이 4월 사이에 河南 彰德으로부터 오는데, 이들 역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南蠻子'로 불려진다. 그러나 順縣, 定襄 등지의 약장수들은 河北이나 山東으로부터 온 이들인데, 약을 파는 것 이외에도 병치료를 겸하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野太醫'라고 부른다. 五台의 縣城 부근에서도 역시 약장수들을 '野太醫'라고 부른다. 太原에서는 '野大夫'로 불리기도 한다.

華北의 山東에서는 安國縣 藥王廟의 菜市가 약장수들의 집합장소이다. 이 藥王廟는 대단히 영험해서 중국 각지에서 생산된 모든 약초들의 집산지가 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만일 약초가 藥王의 신령에 접촉이 되지 않으면 효험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廟會는 매년 두 차례 거행된다. 춘계 廟會는 청명절로부터 시작하며, 추계 廟會는 시월 십오일에 시작하는데, 통상 일개월 정도 거행한다. 이때에는 이곳에서는 성대한 藥市가 있게 되는데, 각지의 약재상인들은 이곳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상호 부조하여 대규모의 약재교역을 실시하게 된다. 예컨대, 北京, 天津, 通州 방면의 상인들이 조직한 '京通藥幫'이라든가, 雲南, 貴州 방면의 상인들이 구성한 '雲南幫'들이 그러한 조직들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 구성의 주요한 목적은 약재업자간의 교역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약을 팔

던 약장수들은 바로 이 시기에 약재를 구입해서는 시골로 다니면서 파는 것이다. 이들 약장수들은 藥王을 '祖師' (직업신)로 받들어 섬기며, 그들 동업자들간에 판매지역과 관련된 협정을 맺기도 한다.

이들 약장수들은 매년 자기의 활동 지역에 이르러 그 지역에 각종 문화와 새소식을 전해준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약장수들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촌락에 각종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외에 '붓장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붓을 파는 것 외에도 책이나 소설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다. 五台山 기슭에는 2월이 되면 이 붓장수들이 河南 懷慶으로부터 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들을 '筆鬚子'라고 부른다. 山西省 경내의 기타 지역에서는 이 붓장수들이 주로 남방 사람들인 까닭에 '南鬚子'로 통칭한다. 이 외에 河北성 冀縣 북방의 北管 馮村에서는 초봄이 되면 붓장수들이 河南으로부터 오는데, 촌민들은 이들을 '南鬚子'로 부른다.

두번째 지식 매개체는 외지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장장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이전에 山西省의 大谷의 경우 매년 삼, 사 명의 사람들이 河南으로부터 와서 성안에서 싸구려 셋집을 세내어 살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였다. 만일 성내에 일이 중단되거나 하면 성 부근의 시골로 가서 일을 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지역으로 온 대장장자들은 일부분 山東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劉村의 경우 이들 대장장자들은 河南에서 온 사람들인데, 매년 삼, 사 년을 머물며 일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간다. 虞鄉 부근의 南梯村의 경우 이들은 2, 3월 사이에 河南으로부터 와서 10월을 전후로 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 蒲州의 대장장자들도 河南 출신들인데 이들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며 黃河를 건너 이곳으로 와서 그 중 대부분은 이곳을 경유하여 다시 시골의 마을들로 간다.

五台山 기슭 일대는 定襄의 대장장자들의 활동지역이다. 定襄縣의 王進村, 趙家營, 龍門村, 神山村 등지는

모두 대장장자들의 본가가 있는 곳이다. 이 지방의 토지는 협소하여 자체의 생산력에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집안 사람들에게 경작을 맡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산기슭의 여러 촌락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이들은 신년이 다 돼서야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定襄縣의 대장장자들의 기술은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인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河南 혹은 山東省의 대장장이라야 만이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대장장자들은 老子를 존중하여 祖師로 삼는다. 이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고향의 이야기나 지나온 각 마을에서 보고 들은 바를 그들이 가는 곳마다에 전하여 준다.

목수들의 경우에도 임시 각 지방으로 옮겨 다니기도 한다. 黃河 부근 蒲州 일대에는 목수들이 河南으로부터 온다.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 역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근의 성내에서 목수와 기와공 석수장자들을 불러 오기도 한다. 華北의 각 지역에 있는 소위 '魯班爺'가 지었다고 하는 廟塔과 고풍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北京市, 東直門의 누각, 白塔寺의 탑, 大佛寺의 大佛은 모두 이 魯班爺가 건축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 山西省 臨汾縣의 鼓樓, 河北省 石門의 석탑, 山東省 益都의 돌다리 등도 모두 魯班爺가 건축하거나 수축하였다는 것들이다. 이처럼 각 지역에 보편적으로 같은 전설이 있는데, 이러한 전설들은 목수, 기와공 혹은 석수장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魯班爺는 곧 이들의 존중하여 받들어 섬기는 祖師이기 때문이다. '魯班'은 《孟子》에 보이는 公輸班이다. 그가 魯나라 사람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魯班'으로 불린 것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魯班은 대단히 뛰어난 기술자였다. 그의 神像을 보면 수중에 한 자루의 굽은 자가 들려져 있다. 건축의 참고서인 《魯班經三卷》은 그의 저작이며 기술자들이 통상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에 유전된 魯班爺와 관련된 일들은 틀림없이 기술자들의 입을 통해 서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번째 전파 매개자는 순회 연예인들이었다. 그 중에서 이야기꾼(說書的)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南宋의 문헌 중에서 이미 이야기꾼이 市井의 瓦子(공연장)에서 시민들에게 강창을 하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이야기꾼은 南宋 이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변화한 도시에는 왕왕 상주하는 이야기꾼이 있었으나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는 이야기꾼은 대부분 여러 촌락들을 순회하며 활동하였다. 山西省의 大谷의 경우 이러한 이야기꾼은 河南省의 南陽으로부터 매년 한 차례 와서는 대략 일 개월 정도 머물렀다. 그들은 삼인 일조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북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쟁을 맡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눈 먼 장님이다. 그들 삼인은 악기의 절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듯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의 제목은 대체적으로 三國演義, 關帝故事, 水滸傳, 彭公案, 施公案, 濟公案 등으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臨汾 부근의 劉村의 경우 농한기가 되면 이야기꾼들이 河南의 大名府로부터 온다.

순회 연예인으로 '傀儡'를 이용하는 인형극단이 있다. 傀儡은 나무 인형이다. 河北省의 寧津, 吳橋 일대가 바로 傀儡戲가 주로 공연되었던 곳이다. 傀儡戲를 공연하는 사람들이 멜대에다 도구들을 지고서 다녔기 때문에 '扁擔(벨대)戲'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벨대의 한끝에는 포개어 접은 무대를 매달고, 한끝에는 여러 개의 나무 인형으로 장식된 등근 상자를 매달고 다닌다. 만일 한 사람이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왼손으로는 나무인형을 조종하고, 오른손으로는 징을 치면서 입으로는 노래를 불러야 하므로 대단히 바쁘다. 두 사람 이상이 공연을 할 경우에는 胡琴과 북을 동원한다. 傀儡戲는 모두 사십여 齣이 있는데, 인쇄된 극본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구두로 전수된 것이다. 이러한 업종의 祖師는 '洪君老祖'이다. 그들은 외지로 가서 공연을 하기 전에 먼저 재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다. 이들의

기술은 모두 세습된 것이다. 寧津에는 전문적인 傀儡戲 스승이 있으며, 傀儡를 파는 시장이 있다. 업자들은 모두 이곳에서 傀儡를 구입한 다음 각자 각양각색의 傀儡의 옷을 짓는다. 이들의 본업은 농사였으나 경지가 협소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타지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그들은 대부분 시원한 북방으로 가며, 겨울에는 온난한 남방으로 간다. 河南省의 靈皮縣 또한 傀儡戲의 중심지이다.

이 외에도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통상 이인 일조를 이루어서 원숭이를 한 마리 지고 다니면서 각 촌락에서 공연을 한다. 어떤 때에는 개를 같이 데리고 다니기도 한다. 또 쥐를 가지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네번째는 종교 여행자들이다. 이들은 五台山의 유월 大會 및 北京 북부 妙峯山, 山東의 泰山과 기타 廟會에 모이는 신도들이다. 이들의 내왕은 산기슭의 촌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각 촌락을 떠돌아 다녔던 風水先生이다.

風水신앙은 사람들이 성을 쌓거나 집을 짓거나 묘를 쓸 때, 가장 적합한 지리에 건축을 할 경우 행운을 초치하고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미신이다. 이러한 지리를 보는 전문가를 사람들은 '風水先生', 혹은 '陰陽先生', '地理先生'이라고 부른다. 이전에 五台山 기슭에는 삼, 사월 혹은 팔, 구월이 되면 風水先生이 江南으로부터 와서 風水를 보았는데, 이들을 당시 그 지역에서는 '南蠻子'라고 불렀다. 이들은 風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침을 놓거나 부적을 써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北京 북방의 海淀의 경우 風水先生이 남방으로부터 왔으므로 역시 '南蠻子'라고 불렀다. 그들 역시 침을 놓고 땀을 뜯 줄을 알았다. 각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전에 남방으로부터 온 風水先生들이 촌락민들의 미신적인 생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中國民俗學〉 중에서)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 중국어

예수님의 열 두 제자

主耶穌有十二個門徒……



彼得
베드로



安得烈
안드레



雅各
야고보



約翰
요한



腓力
빌립



巴多羅買
바돌로매



多馬
도마



馬太
마태



작은야고보
小雅各



다대오
다태



시몬
西门



가롯유다
加略人猶大



主賜給他們能力，兩人一組地
差遣他們出去。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두 사람을 한 조로 해서 그들을 (세상으로) 나가도록 파견했다.



奉他的名傳道和醫治病人。

그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전도하여 병든 사람을 치료했다.

「작은 여인」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중국의 예수가정」



작은 여인/글레디스 아일워드 지음,
김병희 옮김. 전도출판사 (1,700원)

“어느 날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매우 가엾게 여겼으며 그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심히 통곡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청지기였던 그는 저처럼 자기 고용주에게 복종해야 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어코 가고 말았군!“ 저는 크게 소리치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의기 양양한 감정이 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것도 그를 막지 못했어!“ 그 때 마치 누군가가 그 방에 있는 것처럼 한 음성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글레디스 아일워드,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고 가거라.」”

위 글은 매일의 빛(Daily-Light)이라는 책 한 권과 전 재산인 2펜스 반만을 가지고 중국선교를 시작한 영국인 글레디스 아일워드의 자서전인 “작은 여인”에 실린 내용이다.

그는 1932년 10월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둔 채, 선교단체에서는 그의 자격과 교육이 너무 형편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과만 함께 미지의 세계 중국으로 갔다.

1936년 귀화하여 아이 웨 데 라는 중국 이름을 갖고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 청일전쟁중 아무도 원치 않는 가련한 꼬마들을 모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20여 년 동안 중국에 복음을 전했다.

이 책은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록 시사성은 부족하지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여인이 중국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갖다주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그리고 있다.

이 책을 보면 글레디스 아일워드의 용감성에 감탄하게 되고, 또한 부르신 자를 선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게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 로렌 커닝햄,
제니스 로저스 공저, 예수전도단번역
(2,500원)

‘하나님, 정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라고 재빨리 마음 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받은 대답이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나는 순종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도 받아들여야만 했다.

위 글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에 실린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로렌 커닝햄 목사의 고백이다.

이 책은 로렌 커닝햄 목사와 그의 여동생 제니스 로저스가 함께 쓴 것으로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으며 큰 꿈을 품고 사역한 자신의 이야기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실제적인 교과서이기도 하다.

로렌 커닝햄은 겨우 10대가 지났을 때 온 대륙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파도와 같은 젊은이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젊은이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 큰 파도와 같이 세계의 각 나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로렌의 비전은 1960년 Youth With A Mission (한국명칭: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국제적이고도 활발한 하나님의 군대로 현실화 되었다. 하나님은 로렌과 그의 아내 다알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로렌도 실수를 했다. 때로는 너무 빨리 움직였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본 환상만은 항상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로렌과 다알린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

이 책은 중국선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복음화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질 것이다.

이 책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中國의 예수가정/보언리즈 지음, 편집부 옮김, 도서출판 무실 (2,300원)

의태적 색채를 일체 지양하고 중국 기독교 토착화를 주력했던 운동 중 하나로써 외부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단체가 바로 “예수가정”이다. 이 예수가정은 위험한 시기에 그들의 보호를 받았던 영국 의료선교사 보언리즈에 의해 쓰여진 소책자를 통해서 널리 소개되었다. 예수가정은 참으로 세계 기독교토착화와 공동체에 대한 실제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자연적 가계를 단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대체하면서 전통적 중국의 가족 형태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

이 “예수 가정(Jesus Family)”은 중국의 소박한 농사꾼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공산치하라는 핍박의 현실 속에 이 예수가정 형제들의 그야말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로마의 속국이 라는 정치적 억압과 유대종교지도자들의 독기 서린 파가운 질시 속에서도 오히려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에 과히 비견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에도 우리의 사랑스런 예수가정 형제들은 계속 투옥되었지만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충실히 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 책에 의하면 예수가정의 칭 티엔 형제는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중국내지선교회는 예수가정운동의 모체이지요. 내가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처음으로 도전을 받은 것은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부인이 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중국어 역본을 읽고서였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자기회생이 진실로 무엇을 말하는지 희미하게나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1920년대에 영국인인 한 여성에 의해 발간되어 중국에 대규모로 인기 시작한 토착화 운동의 하나인 “예수 가정”을 소개한 책으로 중국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한국교회에게 도전을 준다.



北 京



현재 중국의 수도. 중국 역사에서 주요도시로 등장하는 것은 약 8백년 전인 **송나라** 때부터이다. 특히 **명·청**대를 지나면서 오늘의 기틀을 갖추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후에도 수도로서 중국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북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천안문, 고궁, **天壇**, 이화원, 만리장성, **明13陵**, **雍和宮**, **北海**공원, **圓明園** 유적 등 관광명소는 항상 관광객들로 들끓는다. 중국 정부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어 현대식 호텔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고 있다.

天壇

명·청대에 황제가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 명나라의 영락제가 세웠고 청의 건륭제가 개축했다. 고궁을 중심으로 **日壇·月壇·天壇·地壇**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각각 이름에 해당하는 신들을 봉사하며 천단은 **天神**을 받든다. 천단의 둘레는 약 6km로 고궁의 3배 가량 되며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祈年殿은 황제가 풍년제를 지내던 곳이다. 3층의 원형 대리석 기단 위에 3층의 원형건물이 서 있는 모습인데 높이 38m, 직경 30m이다. 기단 전 안에 있는 **皇穹宇**는 역대 황제의 위패를 둔 곳인데, 명나라 **嘉靖**帝 때 세워졌다. 이곳의 **回音壁**과 **三音石**이 유명하다. **闕丘壇**은 천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장소로 바깥은 4각, 안쪽은 둥근 장승 2층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3층의 원형 대리석단이다.

天安門

중국의 상징이자 북경의 얼굴인 천안문은 명나라 **永樂** 15년(1417)에 세워졌는데 당시는 **承天門**이라고 했다. 그 후 청나라 **順治** 8년(1651)에 개축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이름도 천안문으로 고쳤다.

천안문은 고궁의 남문이지만 실제로 하나의 궁전이었다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중국 고대 건축양식과 재료 기술 등이 이 건물에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앞에는 도랑이 있고 석조다리 5개가 놓여 있으며 다리 양쪽으로는 돌기둥이 서 있다. 옛날 이 문은 황성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金永橋** 앞에서 무사들이 창칼을 들고 지켰다. 천안문 성루 위에는 중화인민 공화국 **國章**이 장식돼 있고 성루 5개의 문 중앙에는 모택동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다. 명·청대에는 황제가 조칙을 반포할 때 이 문에서 의식을 거행했

다. 마치 이를 따르듯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도 1949년 10월 1일 이 성루에서 모택동에 의해 선포됐다. 경축 일이나 큰 축제가 있으면 누상에 8개의 등이 내걸리고 밤이면 아름다운 전광장식으로 빛난다. 관광객도 계단을 통해 성루에 오를 수 있는데 요금은 10원이다.

天安門廣場

천안문에서 正陽門에 이르는 남북 8백80m,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역사박물관에 이르는 동서 5백m의 세계의 광장이다. 총면적은 40ha로 1백만 명이 모일 수 있다. 1949년 건국 당시는 지금처럼 넓지 않았지만 58~59년 인민영웅기념비 인민대회당 혁명박물관 역사박물관 등이 낙성되고 77년 모택동기념당이 완성되면서 현재와 같은 ㄷ자형의 외관을 갖추었다.

· 人民英雄紀念碑: 천안문광장 남쪽에 우뚝 서 있는 높이 32.92m의 백옥비이다. 1958년 5월 1일에 완성된 이 비석은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에 대항하여 싸워온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비석 정면에는 모택동이 쓴 「人民英雄永垂不朽」란 글귀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주은래의 글이 적혀 있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 당시 시위학생들의 지도부가 이곳을 중심으로 활약했었다.

· 毛主席紀念堂: 모택동 서거 1주년에 세운 건물로 천안문광장 남쪽에 있다. 내부는 남쪽과 북쪽의 방, 예배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북쪽 방에는 모택동 좌상이 있고 예배의 방에는 모택동 시신이 수정관에 안치돼 있다. 마치 잠자고 있는 듯한 모택동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만원을 이루고 있다.

· 人民大會堂: 천안문 광장 서쪽에 있다. 다른 나라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곳으로 1959년 가을에 완성됐다. 동서 2백6m에 이르는 넓은 부지 위에 세운 중국 최대의 건물이다. 회당의 중심에 있는 홀은 1층 좌석이 3천7백 석, 2층3천3백50 석, 3층이 2천5백20 석으로 모두 1만 석에 가까운 좌석이 마련돼 있고 정면 무대는 3백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회장이며, 당이나 정부에서 개최하는 대집회의 회의장으로 자주 쓰인다. 또 대회장 북쪽에는 7천여 명의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이 마련돼 있다. 중국식 만찬이라면 5천명, 칵테일 파티라면 1만 명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다.

· 中國歷史博物館 革命博物館: 천안문 광장 동쪽에서 있는 건물로 왼쪽이 역사박물관, 오른쪽이 혁명박물관이다. 역사박물관은 원시사회관, 노예사회관과 봉건사회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혁명박물관은 1840년 아편전쟁에서 1919년 5·4운동에 이르기까지의 구민주주의혁명과 1919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신민주주의혁명의 두 시기로 나뉘어져 있다.



故宮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 황제가 살던 자금성이 그대로 고궁박물관이 되었다. 이 건물은 1407년부터 1420년에 걸쳐 완공됐다. 동서 7백50m, 남북 9백m의 사각형 건물인데 총면적은 72만㎡, 방은 9천 개 이상이다. 하루에 방 한 칸씩 잔다고 해도 27년이나 걸리는 곳이다. 이것도 원래 계획했던 규모에 북쪽 神武門까지 일직선으로 前三殿과 後三殿이 나란히 서 있다. 전삼전은 太和殿, 中和殿, 保和殿을 가리킨다. 여기서의 국가적인 행사나 의식이 베풀어졌는데 外朝라고 하였다. 후삼전은 乾清宮, 交泰殿, 坤寧宮을 가리킨다. 황제는 여기서 직무를 보았고 황후나 궁녀들의 거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대를 內廷이라고 불렀다.

고궁의 남쪽 천안문에서 들어가면 서문을 거쳐 세계 최대의 성문인 午門에 이른다. 午門은 옛날에는 황제가 죄인을 처형하는 형장으로 사용

했던 문이다. 높이 38m, 두께 36m의 터널형 문이다. 오문을 지나면 內金水橋라는 대리석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외조의 첫문 태화문에 이른다. 그 앞의 태화전은 중국 최대의 목조건물인데 건물 전체에 쇠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대의 출정식, 황제 즉위식, 명절 축하예식 등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중화전은 태화전의 행사에 참여한 황제가 휴식을 취하던 곳, 가로 50m, 세로 20m로 뒤쪽 돌계단이 중앙에는 고궁 최대의 대리석 조각인 龍影石이 있다. 길이 17m, 폭 3m, 무게 2백50t의 거대한 조각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바다, 구름, 산을 배경으로 조각돼 있다. 이 한덩어리로 된 거대한 대리석을 남방에서 캐내 얼음이 어는 겨울에 얼음길을 만들어 운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九龍壁, 珍寶館 등이 있다.

보화전 뒤에 있는 건청문이 내정의 출입구다. 내정은 황제, 황후, 궁녀가 생활하던 곳으로 건청궁, 교태전, 곤녕궁이 중심이다. 건청궁 중앙은 황제의 보좌가 있고 정무를 보던 곳이다. 보좌 뒤에는 「正大光明」이라는 액자가 걸려있다. 교태전은 황후 탄신축하행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곤녕궁은 명나라 때 황후의 침소였지만 청나라 때는 황제의 혼례장소로 쓰였다. 곤녕문으로 들어가면 御花園으로 통하게 된다. 이곳은 황제, 황후가 놀던 궁중공원으로 샘과 연못, 기암괴석, 나무와 꽃이, 누각 등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중국백과」 / (신동아) 중에서)

최근중국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종교

* 섬서성 지하교회가 엄중
한 제재를 받다.

홍콩중국교회연구원에 의하면
금년 이래 섬서성에서 천주교 지
하교회 단체의 성직자 다수가 구
속되었다고 한다. 周至교구의 范
玉飛 주교는 자신의 교구내에 있
는 한 여관에서 감금되어 왔는데
이는 부활절 미사 집전 이후 공
안원에 의해 납치당한 후 지금까
지라 한다.

이 일 이후 공안원은 다시 다
수의 천주교 신부를 구속한 바
있는데 신부들은 공산주의 사상
학습에 참석한 뒤 중국정부의 천
주교도 정책에 관한 주의사항을
들은 뒤 석방되었다고 한다. 또
한 봉상(鳳翔)교구의 이경봉(李
鏡峯) 주교도 부활절 미사 이후
학습에 참가하도록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행동의 구속을 받
은바 있다.

홍콩 천주교 소식에 의하면 漢
中교구의 余成梯 주교의 행동도
제한을 받아 본향(本鄉)을 벗어
나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余주
교는 89년 11월 지하주교단 조성
사건으로 체포된 바 있는 주교
중 한 명이였다. 그 이듬해 7월
까지 그는 섬서성에서 구금당한
바 있는데 1개월 후 또 다시 실
종되었다. 아마도 구류되어 1월
까지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公教報 92. 8. 28)

* 中國 西北部에서 아동들
도 교리반에 참가하다.

중국의 18세 이하 아동은 입교
나 학습이 불가하다는 종교정책
으로 인해 대다수 지방 초, 중교
생의 교회나 절의 종교집회 참가
가 제한을 받고 있다. 섬서성의
한 향진(鄉鎮)정부는 심지어 불
신자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등학
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서
북부에 위치한 두 개의 천주교구
에서는 여전히 여름방학 아동교
리반을 열고 있다.

참가하는 아동은 8세에서 15세
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통
천주교 가정 출신이고 이미 영세
도 받은 상태이다. 이 중 한 교
구의 수녀는 “부모는 아이들의
신앙을 더욱 신실히 하기 위해
교리반에 출석시킨다”라고 말하
고 있다. 아동들은 성당에서 간
단한 교리와 중국어 미사지식과
<敎宗萬歲>와 같은 성가를 배운
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 敎宗이
누구나고 물으면 모른다고 고개
를 젓기도 한다.

또 한 교구의 책임자는 “수업
시 지방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
해 문을 닫아 놓는다.”라고 말하
고 있고, 여름 교리반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교리반 출석이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

(公教報 92. 9. 11)

* 대륙 종교인사들이 극좌
관원들에 의해 압제를 받다.

中國政協宗教事務委員會는 9월
3일 북경에서 이를 간에 걸친 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기
독교, 불교, 도교 및 회교의 영
수나 대표들이었다. 회의중 중국
불교협회 회장 趙樸이 중앙 및
지방관원들이 종교문제를 처리하
는데 있어 극좌사상을 띄고 있
음을 밝히자, 불교협회 부회장
周紹良도 합법적 종교활동도 정
부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밝혔
다.

몇몇 정부 부처는 심지어 사원
의 향유비(香油錢)까지 강제로
자신들에게 빌려주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다. 周紹良은 계속해서
정부당국은 때때로 사원이나 기
타 부근에서 거행되는 제반 활동
도 정상적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저촉되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
했다. (明報 92. 9. 8)

* 교구도 경제 특구 발전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 당국이 위임한 산두(汕
頭)교구의 蔡體遠 주교는 汕頭경
제 특구의 최근 발전에 따라 천
주교도 이득을 얻고 산두특구 설
립 이후, 과거 10년 간 천주교도
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
음을 밝혔다. 상공업부문 기업에
종사하는 천주교도들의 소득은
과거를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교

회에도 더욱 많은 지원을 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80년에 경제특구가 설립된 이후 건축재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교우는 성당신축기금으로 인민폐 1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한다.

汕頭교구는 汕盧의 聖若瑟주교 당에서도 자동차로 약 30분 걸리는 거리에 또 한 성당을 건설하여 인근과 산두시 근교에 사는 신자들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구내의 젊은 천주교도들은 사제로서의 헌신에 마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경제부흥의 반대방향도 나타내 보이고 있다. 蔡주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촌지역의 뜻있는 성직교우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을 설파했다. (公教報 92. 8. 21)

*** 중국 삼자교회와 협력 주장**

중국선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중국삼자교회에 대한 편견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관계로서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중국정부 통제하의 삼자교회보다는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벌이던 한국교회 선교활동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가 11월26일 한국교회1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선교문제 연구회에서 박상중 목사(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와 이삭 목사(모퉁이들선교회)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중국기독교와의 관계도 공식적인 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 (크리스찬신문 92. 12. 5)

*** 중국, 自國人 신학교육 향의**

중국은 외부인에 의한 종교 활동을 여전히 「침투」행위로 간

주,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민이 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집회를 하는 것도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선교관련인사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지 목회를 하기 위해 귀국한 중국국적의 한 목사에 대해 집회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중국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신학교육을 시켰는지 또 한국교회가 자격 없는 사람을 2-3개월 훈련시켜 목사, 장로로 안수해 보내는지를 물으면서 이 같은 처사는 한국교회가 중국사정을 모를 뿐 아니라 중국교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기독교연합신문 92. 12. 12)

*** “중국상황에 맞는, 중국인 위한” 기독교 주장**

중국기독교협의회 텅 주교는 “자금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협의회에게 있어 최근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고 야미드 뉴스 서비스에 밝혔다. 텅 주교는 한 통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40년 동안 자급, 자치, 자전의 3자 원리는 중국 교회로 하여금 중국인과 동일시되고 중국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성숙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과거 10년 간 중국에서 교회의 증가와 성장은 목회자와 신학적 훈련을 지원하는 어려움을 포함하여, 경제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일부 지역협의회들과 개별 교회들은 해외로부터의 기금을 추구해 왔고,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 기금을 허용하려는 정부 당국과의 협력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사회기관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텅 주교는 말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경제적 상황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위태될 수는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교회의 본질과 근본 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기독교인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찬신문 92. 12. 19. 복음신문 93. 1. 3)

*** 종교학부 포함 실크로드종합대학 “개강”**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기독교학과를 비롯한 종교학부를 포함한 종교대학으로 지난 10월 10일 개교한 상해 실크로드대학교(이사: 조두하 목사)가 93년 3월 개강을 앞두고 한국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93. 1. 10)

*** 중국선교 재정비 필요**

최근 중국 수교와 국내의 목회자와 교단들이 중국에 무분별하게 교회를 설립하여 가정교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변화와 함께 각 지방정부에 “삼자교회” 등록을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줌에 따라 한국의 교회들이 지방정부에 교회 등록을 신청하여 “삼자교회”를 세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선교전문가에 의하면 “아직도 삼자교회는 정부 통제하에 있어 교회의 자율적 운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저소 교회의 성도들이 압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음신문 93. 1. 10)

*** 중국지하교인들 크게 위협**

중국정부가 기독교인들에 다시 압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

으로 밝혀져 중국선교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있다.

최근 미주 크리스천 저널이 중국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은 급진적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 경제성장이라는 구실 아래 국민들의 단결을 촉구하며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반민족적 누명을 씌워 무서운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보면서 사상적 단속을 심화, 외국 사조는 물론 선교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그들이 체제유지를 위한 한 방법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점차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문화혁명 당시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여러 가지 통계 기록이 있지만 개신교인이 6천3백만, 카톨릭이 1천2백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독신보 93.1.16)

*** 中國, 종교에 黨관심 역설**
중국 공산당내 문화와 선전부 문 최고책임자인 李瑞環 정치국 상무위원은 종교가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유익하다고 역설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가 20일 보도했다.

李瑞環은 종교지도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종교는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것이다. 종교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는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종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간부들이 문제를 그들의 의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가 소수민족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사이며 국가의 단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종교를 억압해 왔으며 티베트 자치구와 신강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종교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돕고 있다. (한국일보 93.1.21)

*** 중국 연변 자치주 종교국장 초청**

95민족통일희년대성회(총재: 신현균 목사)는 지난 18일 팔레스호텔에서 93년도 제1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새해 예산 3억 원을 통과 시키고 중국 연변자치주 종교국장(김룡민)을 초청하여 한국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중국을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섭키로 했다.

(크리스찬신문 93.1.23)

한중관계

*** 중국투자 1억弗 넘을 듯**
올 들어 국내기업들의 對中國 투자가 크게 늘어나 연간 투자실적 1억 달러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재무부는 5일 내놓은 「對중국 투자현황」에서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국내기업들의 對중국 투자실적은 모두 1백8건 9천4백74만 달러(실제투자기준)로 작년 전체실적 69건 4천2백46만 달러를 금액 기준으로 2배 이상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2.12.6)

*** 韓-中 경험확대 합의**
한국과 중국은 현재 중국이 추진중인 제8차 5개년 계획(91-95년)의 각종 투자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중 대규모 민-관합동 투자조사단을 중국에 보내겠다고 중국측에 통보했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성과 지방정부도 앞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2.12.8)

*** 연변 국제공항 한-중 합작 건설**

중국 길림성 연변에 지금까지의 한-중 합작프로젝트 사상 최대규모가 될 국제공항이 99년까지 건설된다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주)만광개발이 밝혔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92.12.1)

*** 中國 복수여행허가대상 확대**

정부는 11일 중국 및 미수교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위

해 복수여행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여행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허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일보 92.12.11)

*** 中國경제 2010년엔 세계 최강**

중국이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17년 후인 201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도 전망됐다.

따라서 이같이 거대한 중국경제의 등장은 앞으로 서방의 정책입안가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며 우리 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무부는 5일 중국개혁에 대한 각종자료를 요약정리한 「중국의 개혁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의 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일보 93.1.5)

*** 한국, 青天白日旗 계양금지**

台灣 華僑들이 대만의 국기인 青天白日旗를 한국내에서 계양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치는 韓, 台灣간 관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대만 外交部의 章孝嚴 차관이 10일 강력히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는 한국이 오는 15일부터 대만 화교들이 青天白日旗를 계양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뒤이어 나왔다. (국민일보 93.1.11)

*** 中國銀, 韓國에 올 지사설치**

中國의 중앙은행인 中國銀行(BOC)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편

승, 올해 韓國을 비롯 동남아국가에 지사 또는 합작 은행을 설치할 것이라고 BOC 부총재가 9일 밝혔다. (국민일보 93.1.11)

*** 韓-中고역 올1백35억弗**

盧載源 駐中대사는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은 85억 달러로 당초 예산액인 1백억 달러에는 못 미쳤으나 91년에 비해 50% 정도나 신장됐고 올해에는 1백3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盧 대사는 對中투자와 관련 「91,92년 2년 동안 중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4백32건, 3억4천3백만 달러이며 올해는 7백 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형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92.1.16)

*** 韓國상품 中國서도 “평가절하”**

무조건 팔고 보자는 「성급한 商魂」이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국산 전자제품이 중국에 대량 유입되고 있으나 수출 증대인인 홍콩 상인들의 무성의, 국내 업체의 애프터서비스망 미확보, 사후 관리 부재 등으로 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 (국민일보 93.1.18)

정치

*** 中國, 「天安門」 때 좌천者 중용**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사령부의 인사 이동을 완료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군사령부를 비롯한 공군, 해군, 무장 경찰부대, 각 軍區에 걸쳐 70% 가량의 사령관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의 도쿄(東京)신문이 13일 北京 발로 보도했다. (한국, 국민일보 92.12.14)

*** 中國軍 대대적 肅正운동**

중국은 현재 全軍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紀綱 肅正」 운동을 벌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일본의 교토(共同)통신이 解放軍報를 인용, 北京 발로 25일 보도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해방군보는 이날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일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우수한 전통을 발휘하고 廉潔한 정치를 건설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중국군이 기강숙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 92.11.27)

*** 감경 黨선전부장 해임**

중국공산당은 지난 89년 天安門 민주화시위 이후 문화 언론매체에 대한 강경탄압을 주도해온 黨선전부장 王忍之를 해임하고 후임에 최고 실권자 鄧小平의 측근인 통일전선공작부장 丁關根을 임명했다고 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왕의 해임은 中國공산당 이데올로기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당 기구들내에서 강경 보수파들에 대한 경질조치의 일환이다. (조선일보 92.12.4)

*** 중국 개혁-개방바람 내륙 지방 확산**

중국정부가 연해개방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우대 정책을 成都市(四川省)와 鄭州市(河南省)등 20

개 도시에도 확대-적용키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의 개방 물결이 태평양연안지역에서 내륙지방으로 북상할 전망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급격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투자가 집중된 연해지역과 그렇지 못한 내륙지역간 경제격차가 갈수록 확대, 사회문제가 빚어져 왔다. 이같은 역기능을 깨달은 중국지도부는 내륙지역경제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 「華특구우대지역」을 새롭게 지정함으로써 이 지역들에 대한 외국 기업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조선일보 92.12.7)

*** 中國 10년내 航母보유**

중국국가주석 楊尙昆은 중국이 南中國海에서의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 앞으로 10년내에 적어도 1척의 항공모함을 도입, 실전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14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12.14, 경향신문 92.12.15)

*** 리-中 전분야 관계발전 합의**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訪中 이틀째인 18일 李鵬 中國 총리 및 江澤民 공산당 총서기, 楊尚昆 국가주석 등과 차례로 만나 평등 호혜 친선 원칙 아래 군사부문과 핵의 민간부문 활용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92.12.19)

*** “중국에 경제압력”**

빌 클린턴 美대통령 당선자는 22일 中國의 인권상황 및 홍콩 문제개선 등을 위해 北京측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클린턴 당선자는 이날 TV로 방영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홍콩에 사는 이들이 어떤 삶을 영위해야 할지를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면서 무기확산저지 등에 대한 美 新행정부의 정책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문화일보 92.12.23)

*** 中國, 통일회담 추진**

中國은 대만과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간 회담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자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가 보도했다. 7일자로 발행된 이 잡지는 홍콩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中國 지도부가 최근 이같이 결정했으며 江澤民 공산당 총서기가 신년초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하려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발표가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93.1.7)

*** 「鄧小平달력」 회수소동**

中國에서는 年初부터 鄧小平의 사진이 실린 달력을 회수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6일 지난해 상해를 방문한 등소평의 모습이 담긴 93년도 달력에 대해 배포 중지 명령을 내렸다.

南巡講話에 나섰던 등소평의 모습을 6장이나 담은 이 달력은 上海自由報가 발행한 것이다. 관계 당국은 이 달력이 鄧小平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上海自由報 측에 달력의 공공 배포를 중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 93.1.8)

경제

*** 올 중국무역 10%증가**

1,500억\$

中國의 올해 무역규모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천5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중국 관영 英字紙인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지난해 13位의 무역국이었던 中國이 조만간 10位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차이나 데일리는 수출이 매년 20%씩 증가하면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中國은 지난해 수출이 15.8% 증가했고 무역규모는 1천3백57억 달러로 8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92.11.11)

*** 길림성 防川村 육성 계획**

中國은 中國-러시아-북한 등 3국의 국경교차지역인 吉林省 琿春市の 防川村을 앞으로 「北方

의 홍콩」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홍콩의 권위지 明報가 3일 보도했다.

明報는 朝鮮族 自治州의 한 작은 마을로 행정구역상 琿春시에 속하는 防川은 동쪽으로 러시아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해 있어 中國 러시아 북한 3국의 국경교차지역이라고 지적하고 北京 당국은 두만강 하류개발계획과 함께 防川을 「북방의 홍콩」으로 육성할 야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2.12.4)

*** 中國 올 12% 成長**

中國의 李鵬 총리는 中國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연 12%에 이를 것임을 인정했다고 관영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李鵬 총리는 지난주 열린 한 경제관련 회의에서 中國의 92년

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6%와 수정목표인 9%를 크게 뛰어넘는 12%에 달할 것임을 밝혔다

국영 TV뉴스가 27일 전했다. (국민일보 92.12.28)

*** 中國, 交通분야 개방 확대**

中國은 교통 및 운수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내 교통, 운수시장의 對外개방 폭을 크게 확대, 외국기업의 도로, 철로 및 항만시설 건설과 경영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홍콩 文匯報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 교통부장 장 철도부장의 말을 인용, 中國은 앞으로 국내교통 및 운수시장을 더욱 개방하여 외국기업의 교통, 운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93.1.13)

*** 中國 소매시장 본격개방**

中國은 외국인들에게 주요도시에서 소매상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소매시장을 본격적으로 對外개방할 것이라고 홍콩의 明報가 12일 밝혔다.

中國은 외국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주요도시에서 소매점경영과 국영상점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는 일부 외국투자자들이 최근 중국의 6대 도시와 5개 경제특구에 소매시장을 개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93.1.13)

*** 中國은행 내년부터 홍콩화폐 발행**

中國은행이 94년부터 홍콩에서 화폐발행을 시작한다고 홍콩 신문들이 13일 보도했다.

중국은행의 발권계획은 현재 홍콩 입법국의 승인과 실무적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홍콩화폐는 현재 홍콩상하이 은행이 홍콩 총 통화의 85%를 발행하고 나머지 15%는 스탠더드 차터드은행이 발행하고 있는데 中國은행이 제3의 발권은행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은행간의 발권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조선일보 93.1.13)

*** 中國, 홍콩서 화폐발행**

중국의 외환은행격인 中國銀行이 94년부터 홍콩에서 화폐발행을 시작한다고 홍콩신문들이 13일 보도했다.

중국계의 大公報와 文匯報를 비롯한 신문들은 홍콩 행정국이 12일 중국은행의 화폐발행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중국은행은 94년부터 「홍콩 상하이은행」과 「스탠더드 차터드은행」에 이어 홍콩 제3의 발권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93.1.14)

사회

*** 中國 혼외정사급증 “골치”**

中國이 혼외정사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3년간에 걸친 개방의 부산물인 반값지 않은 불청객에 발목을 잡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혼외정사는 이혼의 급증마저 초래, 가정을 뒤흔드는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나 별 대비책이 없어 中國지도부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문화일보 92.12.8)

*** 中國, 관영신문 1면에**

「나체」 첫 게재

中國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1면에 처음으로 가슴을 거의 드러낸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섹스에 관한 기사가 전면 게재돼 화제.

문화부가 발행하는 「中國文化報」는 4일 배포된 구랍 31일자에서 그간의 보수 색채의 지면을 과감히 깨면서 톱 뉴스로 포르노성 사진과 함께 유명한 글래머 배우인 리쇼킹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것. (국민일보 93.1.5)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 오늘날 중국은 성도의 숫자가 날로 늘어, 흘러나온 중국당국의 통계로도 친구고인 약 7천 5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중공당국 문서자료에 따르면 훈련지부를 습격하고 가정교회를 폐쇄하도록 협박하고 있다.
 - 주님께서 중국의 정치상황을 주장하셔서 하루 속히 중국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2. 중국절강지역 특히 온주에서 교회들이 그곳의 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외곽지역의 삼자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미등록 가정교회들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 주님께서 절강지역의 교회들이 더욱 온전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핍박받는 미등록 가정교회를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길
3. 운남지역의 곤명자치구의 가정교회가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당국의 폐쇄조치에 위축되고 있다.
 - 주님께서 이곳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4. 중국당국이 해외 각 선교단체들의 선교자료의 중국내 유입을 파악하고 그에 맞선 각종 규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주님께서 전세계의 중국을 위한 선교단체의 활동에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어 중국성도들에게 필요한 선교지원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5. 하남, 흑룡강성, 산서, 강소, 섬서 등 여러 지역에서 가정교회의 집회가 봉쇄당하고 성도들이 체포, 구금, 구타당하는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 주님께서 이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박해를 막아주시고 핍박당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길
6. 중국의 6천3백만 명에 달하는 개신교 성도가 성경을 손에 질 수 있으려면 교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도 25년이 걸린다고 한다.
 - 주님께서 성경발간 부수를 제한하고 있는 중국당국자들의 정책을 바꾸도록 역사해 주셔서 중국성도들이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게 도우시길
7. 중국선교에 있어 중국 삼자교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편견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관계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주님께서 한국교회에게 특별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셔서 중국 삼자교회와 지혜롭게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내 정식 진출의 길이 열리도록 도우시길
8. 한중수교 이후 최초로 기독교학과를 포함한 중고대학으로 개교한 상해 실크로드 대학교에서 3월 개강을 앞두고 한국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 주님께서 선교의 비전이 있는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학원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토록 인도하시길
9. 중국 정부가 연해 개방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우대 정책을 성도시와 정주시 등 20개 도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 주님께서 이 개혁 개방의 길을 따라 복음이 중국 전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10. 한국내에 중국선교를 위한 여러 선교단체와 훈련원들이 있다.
 - 주님께서 이 선교단체들이 교회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행하게 하시고 이 속에 헌신되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길
11. 중국선교에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의 후원이 요청되고 있다.
 - 주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헌신된 기도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시고 중국을 위한 기도회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알 림

* 제2기 중국선교훈련생 모집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를 지망하는 분들을 위한 제2기 중국선교 훈련학교를 3월 2일부터 개설하고 원생을 모집합니다.

중급반과 초급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선교중국어의 집중적 훈련과 중국선교 일반을 다루게 될 훈련학교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594-8038, 533-5497 중국어문선교회로 문의 바랍니다.

* 오엠(O.M) 연례선교수련회

한국오엠선교회는 미전도지역인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및 중동 일대를 비롯한 이슬람 선교에 역점을 두어 "중앙아시아 및 모슬렘세계 접근"이라는 주제하에 줄리안 리드스톤(중동사역 20년) 등을 강사로 2월 22일(월)~27일(토)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육한음 목사), 부산 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오엠국제선교회 전화 568~

1436로 문의해 주십시오.

*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2월 22일(월) 7시 종로5가 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노봉린 박사(아시아연합신학원 교수, 기독교21세기운동 총무)를 강사로 모시고 '기독교21세기운동과 중국선교'라는 주제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사항은 594-8038

* 방한중국교포 선교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사랑의 집'과 '복음전도단'은 매주 화요일 방한 중국교포를 위한 전도와 남대문 교회에서의 전도집회(중국교포선교협의회 총무 강성실 목사님 인도) 및 '사랑의 집' 양육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에 관심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의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873-2570 '사랑의 집'

『중국을 주제로』구독안내

본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정상 본회의 회원에 한해서 1인 1부씩 무료로 우송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부수만큼은 1부당 2,000원씩 발간헌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1년 구독은 만원)

정기구독을 원하시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594-8038, 533-5497)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필요한 부수만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편집후기

벌써 한 달이...
시간에 끌리지 않고 시간을 끌고 가는
삶을 살고 싶은 새해. -혜

이번 특집은 호흡이 꽤 긴 글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선교를 하려는 분들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석

자꾸 늦어져서 죄송 또 죄송.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俊

제 2 기

중 국 선 교 훈 련 원 M.T.I. for CHINA

훈련생 모집 3월 2일 개강

서기 2000년이 되면 중국은 기독교 역사 이래 최대의 추수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中國語文宣教會는 중국선교를 위한 헌신자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추수사역에 충성된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목 표

- 선교지 언어인 중국어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회화는 물론 전도, 양육, 선교에 필요한 선교중국어 습득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 중국교회와 중국 일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바람직한 중국선교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한다.
- 선교실습을 통하여 중국어 전도, 중국어 양육, 중국어 설교 등 실제사역 능력을 배양한다.

과정 및 기간

- 국내연수과정 : 3월~7월 (21주)
 1. 주간과정 : 3. 2~7. 24 (매주 월, 화, 목, 금 08:00~12:20, 토 15:00~18:00)
 2. 야간과정 : 3. 2~7. 24 (매주 월, 화, 목, 금 19:00~21:00, 토 15:00~18:00)
 3. 주말과정 : 3. 6~7. 24 (매주 토 15:00~20:00)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 현지연수과정 : 9월~11월 (10주)

대 상

- 개교회, 교단선교회, 학생선교단체, 일반선교단체에서 위탁하는 중국선교사 지망자.
-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전임 또는 평신도 선교사 지망자.
- 국내 중국선교 전문사역(선교행정, 연구사역, 문서사역, 교육훈련 사역 등)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
- 선발 : 본 훈련원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강 사

- 본 훈련원 강사진
- 중국선교 전문가 다수

교육내용

- 선교 중국어 : 초급중국어 I, II, 사도신경, 주기도문, 사영리 我的第一本聖經 교재, 중국어 찬양, 信仰讀本, 중국어 회화, 한문, 중국어설교연습
- 중국 선교특강 : 중국교회사, 중국종교정책, 중국교회 현황, 동북조선족선교, 중국지역별선교현황, 중국선교 사례연구,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전략, 중국문화이해, 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현황 등
- 선 교 일 반 : 선교와 개인 관리, 시간관리, 전문인선교, 개인전도훈련, 후원자 관리 및 기도편지 타문화권의 생활과 적응, 타종교 이해, 팀워크론 작성법, 및 리더쉽 훈련 등.
- 국내선교 실습 : 중국교포초청 전도집회, 인천 중국선박 승선 사역.
- 현 지 연 수 : 공동체 훈련, 현지 어학연수, 문화적응 훈련, 선교답사 여행.

등 록

- 제출서류 : 훈련원 소정양식 1통, 교회·교단 혹은 선교회 대표 추천서 1통, 개인신앙고백서 (200자 원고지 5~6매) 반명함판 사진 1매
- 접수마감 : '93. 2. 20 (토) 12:00
- 참 가 비 : 주간과정 70만원 / 야간과정 45만원 주말과정 25만원 (현지 연수 경비는 별도)
- 등록 접수비 (3만원) 를 온라인이나 지로로 납부하고 전화로 신청바람. 개강당일('93. 3. 2) 잔액 납부.

• 문의 및 접수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 B/D 302호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 594-8038, 533-5497
FAX : 599-2786

•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84-01-0283-625
(수취인 : 중국을 주제로)
지로 구좌 7602362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훈련원 사역 외에도 교육사역, 연구사역, 문서사역,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사역, 「사랑의집」사역, 인천중국선박승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中國語文宣教會

中國語文宣教會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 **교육사업** : 선교지망자들을 위한 중국어학훈련, 선교중국어 교재 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업** : 정기적으로 선교세미나 개최, 선교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자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번역 및 출판사업** : 각종 선교책자 번역, 회지발간 및 각종 관계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 **방한중국교포사업** : 전도집회 및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고 문 / 방 지 일 목 사
 대 표 / 박 진 국 장 로
 총 무 / 이 요 한
 부 총 무 / 김 광 석
 사무 간사 / 남 경 화
 교육부간사 / 안거안 · 김성순
 번역부간사 / 빈 미 정
 연구부간사 / 석 은 혜
 출판부간사 / 박혜영 · 김준미
 중국선교훈련원총무 / 장 혜 숙
 협력 간사 / 베다니엘 · 윤승일
 파송연구원 / 주 안 도
 파송선교사 / 정선영 · 박애린 · 예보람
 협력선교사 / 고대위 · 주성지 · 강성광
 인천지부간사 / 주 미 애

본 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업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중국을 주께로

CHINA TO GOD

발행인 / 박진국
 편집인 / 박혜영
 편집주간 / 석은혜
 기 자 / 김준미
 미 술 / 구본임
 사 식 / 대동전산